

# 21세기 이후 영미권 학자들의 백두산연구

유성희 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조교수

21세기 이래 국내 백두산연구는 다양한 주제들을 선보였고, 2013년에는 가장 많은 연구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해외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21세기 이래 영미권에서 논의된 백두산연구들을 종합해서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두산이 한민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추적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백두산이 가지는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북한 김씨일가의 통치성과 연결되는지에 주목했다. 둘째, 국경지역인 백두산이 어떻게 한국과 중국 혹은 북한과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는지(혹은 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근대 이전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 및 인근 국경지역을 둘러싸고 어떤 논의를 진행시켰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넷째, 19세기 외국인들은 백두산 탐방을 다녀오고, 여기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지리적·문화적 정보를 기록했다. 영미권에서 바라본 백두산연구를 4가지로 구분한 이후, 저자는 새로운 백두산연구를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분석단위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백두산, 동아시아, 김씨일가, 샤머니즘, 국경지역

## I. 서론 및 문제제기

지금껏 한-중 관계는 그 역사적 기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만큼 오래되었고, 복잡한 이해관계 및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한-중 관계의 어떤 한 부분만을 짚어 한-중 관계를 설명하려 한다면, 이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중 관계 중에서도 우리가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운 연구영역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백두산 관련 문제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다수의 백두산 관련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sup> 첫째, 문학적·문화적·종교적 측면에서 바라본 백두산 연구(김기

<sup>1</sup> 2000년 이전에도 국내에서 여러 백두산 연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배성준(2018: 290)에 따

영, 2020; 박찬승, 2013; 조대희·이승하, 2016; 정경희, 2018); 둘째, 백두산을 다녀온 내·외국인들의 기행문(김동준, 2014; 안상훈, 2015; 우명길, 2023; 정우봉, 2018); 셋째, 국제관계 및 지정학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백두산 연구(문상명, 2022a; 2022b; 윤휘탁, 2013; 2015; 2018a; 2018b; 정기은, 2008); 넷째, 근대 이전 시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강석화, 2005; 2011; 김재영, 2017; 박선영, 2007; 배우성, 2007; 문상명, 2021; 서길수, 2009; 송용덕, 2007; 이상태, 2007; 이화자, 2008; 정치영, 2011); 다섯째, 북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백두산 논의(고현철, 2005; 임수진, 2019)가 그것이다. 열거한 것과 같이, 백두산 관련 이슈는 한·중간의 지정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주변국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기도 한다(박선영, 2020). 여기에 더해 백두산은 고래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민족의 시발점이기도 한 상징적인 장소이기에 문화적·종교적·이념적 의미로도 널리 활용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지정학적·지경학적·지문화적 성격들이 중첩되어 있는 백두산 연구이기에, 백두산을 하나의 연구주제로 정하고 이를 치밀하게 연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국내 백두산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다름 아니라 백두산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바라본 백두산 논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백두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많은 국내 학자들이 백두산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식론적 차원에서 국내 백두산 연구를 다시금 돌아보고 성찰하며, 나아가 새로운 백두산 관련 연구를 개척하는 데 있어 내부적인 시선만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백두산 연구도 상이한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종다기하게 구성될 수 있음인데, 이를 국내 백두산 연구의 주제만으로는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연구방식은 국경 및 학문적 경계가 관계없이 백두산과 관련된

르면, 1989년 한·중 수교가 분수령이었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을 통한 백두산 현지조사가 가능해지기 시작한 1989년부터 다양한 기관과 연구소의 백두산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1990년대 행해진 백두산 연구는 주로 “지질·지형, 생태 분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역사·지리·문화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배성준, 2018: 293),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로 백두산 연구 기간을 상정했다.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외 연구자들과의 백두산 공동연구라든지, 혹은 백두산에 관심 있는 영미권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 번쯤 국외에서 백두산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짚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국내 백두산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영미권에서는 어떻게 백두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 한다. 앞서 잠시나마 21세기 이래 진행된 국내 백두산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제시했는데, 이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공하는 국내 학술지 논문 제목 가운데에서 ‘백두산’이 포함된 연구 수는 2013년에 14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된 자연과학적 연구가 2010년대 중반에 폭증했다는 점에서, 그 당시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평가 내릴 수도 있다(배성준, 2018). 그럼에도 2010년대와 같은 백두산 연구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 백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배성준(2018: 292)도 인정했듯이, 한국에서 백두산 관련 연구 가운데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는 주로 역사·지리나 문화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반해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영어논문 제목(2001~2023)에서 ‘paektu’가 포함된 동료심사를 받은 연구논문 수는 215건이었고, 여기에서 자연과학적 논문을 제외한 인문·사회계열 논문 수는 94건이었다. 중요한 점은 95건의 논문 가운데에는 1) 민간신앙(2건), 2) 정치·외교·군사(48건), 3) 문화(유산)(9건), 4) 역사(지리)(16건), 5) 관광(2건), 6) 인류학(2건), 7) 예술(15건) 등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sup>2</sup>(표 1 참고). 대략적인 추세를 보면, 2010년대까지는 정치·외교·군사분야, 역사(지리), 그리고 문화분야에서 연구성과에 집중되었으나, 2010년대 이후부터는 예술분야, 인류학, 관광분야의 연구성과들도 꾸준히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sup>2</sup> [https://hollis.harvard.edu/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Paektu&tab=everything&search\\_scope=everything&vid=HVD2&facet=searchcreationdate,include,2001%7C,%7C2023&facet=rtype,include,articles&facet=tlevel,include,peer\\_reviewed&lang=en\\_US&offset=210&came\\_from=pagination\\_21\\_22\(검색일: 2023. 7. 18.\)](https://hollis.harvard.edu/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Paektu&tab=everything&search_scope=everything&vid=HVD2&facet=searchcreationdate,include,2001%7C,%7C2023&facet=rtype,include,articles&facet=tlevel,include,peer_reviewed&lang=en_US&offset=210&came_from=pagination_21_22(검색일: 2023. 7. 18.))

표 1 영미권 백두산 관련 논문 현황(2001~2023)

연도	민간신앙	정치/외교/군사	문화/문화유산	역사/지리	관광	인류학	예술	계
2003		2					1	3
2004		1						1
2005			1					1
2006		2						2
2007		1		1				2
2008		1	1					2
2009		1						1
2010		3		2				5
2011	1							1
2012		3	2				3	8
2013		1		2			1	4
2014		1	1				1	3
2015		5		1				6
2016		5		1			1	7
2017		3	1	1	1			6
2018	1	2		2				5
2019		7		1		1		9
2020		6	1	2				9
2021		1	1	2	1	1	4	10
2022		3	1	1			2	7
2023							2	2

이런 점을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영미권에서 진행해 온 백두산 관련 연구를 요약해 제시하고자 한다.

영미권 학계에서 바라본 백두산에 대한 인식을 논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 하는데, 첫째, 백두산과 관련된 자연과학적 주제들(예: 백두산 광물, 화산활동, 산림, 자연보호 등)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백두산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자 했기에, 자연과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백두산 관련 연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다. 물론 자연과학적 연구도 함께 제시해 백두산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동향을 확인하면 좋겠지만, 이

는 연구자의 역량을 뛰어넘는 것임과 동시에 본 연구의 본래 의도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영미권에서 백두산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들을 찾기 위해 연구자는 1) Google scholar, 2) Brill, 3) JSTOR, 4) Project MUSE, 5) Taylor & Francis Journals, 6) Wiley-Blackwell Online Library 등을 활용했다.

둘째, 백두산 주제와 관련된 시기 및 연구주제의 다양성이다. 백두산과 관련된 영어권의 연구들은, 다양한 시간대 및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영어권 역사 학자들이 근대 이전 백두산 지역을 둘러싼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영토권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사회과학자들은 현대 북한의 김씨 정권이 어떻게 백두산이 가진 상징성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백두산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관계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나아가 일부 인류학자나 인문학자들은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 이런 복잡다단한 연구성과를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기 위해 연구자는 편년체적 방식으로 기술하기보다는 3가지 주제별로 백두산 연구를 묶고 이후 영어권 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제시했다.<sup>3</sup> 다음으로 영어권 학자들이 백두산연구를 할 때 새로운 분석단위인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소개하고 본 연구를 마무리했다.

## II. 영어권 학자들의 백두산 연구

### 1. 백두산: 한민족의 정체성, 문화의 상징, 토착 샤머니즘의 대상, 그리고 현대 북한 김씨일가의 통치 이데올로기

영어권 학자들이 진행한 백두산 연구의 첫 번째 줄기로서 저자는 백두산을

<sup>3</sup> 19세기 이후부터 만주 및 한국을 방문한 여러 외국인이 백두산을 방문했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소감 및 관찰일지를 기행문의 형태로 남겨 놓은 바 있다[관련해서 배성준(2017), Campbell(1892), James(1888), Cavendish and Goold-Adams(1894), Haeussler(2010) 등의 연구를 참고]. 그럼에도 본 연구는 21세기 이래 형성된 영미권 내 백두산 연구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다.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이자, 하나의 토착신앙으로 바라본 연구들을 소개하려 한다(Cathcart, 2010: 38; Freeman, 2010: 154). 올슨(Olsen, 2008)은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백두산에서 시작된 단군신화에 주목했다.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백두산에 터를 잡고, 인간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중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곰만 여자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고, 이렇게 변한 여인, 곧 웅녀가 환웅과 혼인해 단군을 낳았다는 단군신화를 소개하면서 올슨은 한국 민족국가 개념의 원형이 단군신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레이슨(Grayson, 1996)은 단군신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단군신앙이 이후 산신신앙(the Mountain God)으로까지 확대·변형되었다고 바라봤다. 또한 그레이슨(Grayson 2002)은 백두산이 한민족뿐만 아니라 만주족들의 신화 속에도 등장한다고 언급했다.<sup>4</sup> 백두산이 가진 샤머니즘 성격으로 인해, 켄달(Kendall, 2011)은 북한인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또한 백두산을 많이 순례한다고 지적했다.

로저스(Rogers, 1982: 3)는 고려 의종시대 김관의(金寬毅)가 편찬한 편년통록(編年通錄) 속 백두산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김관의는 풍수지리상으로 백두산이 얼마나 복지(福地)인지를 분석하는 한편, 백두산이야말로 단군사상이 만들어진 지리적 모체임을 언급했는데, 로저스 또한 김관의가 지적한 의견에 동의했다. 로가스키(Rogaski, 2018)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백두산(장백산)에 대한 지식 생산과 백두산이 가지는 정치공간의 의미를 소개했다. 로가스키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과 중국 엘리트들은 산에 대해 합리적·보편적·과학적인 지식을 창출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산에 대한 미신적 신앙 또한 숭상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시기 백두산에 대한 한·중 지식인들의 지적 결과물은 과학과 미신의 결합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식인들의 백두산에 대한 연구는 각 국가의 정치문화적 상황들과 불가분의 관계로 얽여 있다고 로가스키는 덧붙였다.

로가스키와 비교해 볼 때 데이비드 아브라함 페드만(David Abraham Fedman)은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보다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페드만은 일제 강점기 동안

<sup>4</sup> 청나라 이래 만주족들에게 백두산은 신성하게 여겨지는 장소였다. 이에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로는 McKay(2015) 참고.

백두산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 페드만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들에게 백두산은 건국신화의 장소이자, 한국 최초의 왕국이 만들어진 장소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험준한 국경지역과 맞닿아 있어 백두산과 인근 숲속에는 화전민, 밀수꾼, 도적 및 농부들이 한데 뒤엉켜 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조선시대까지 백두산과 산림지역은 원시림 성격이 강했고, 이 지역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지역으로 인식되었지만, 일본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백두산과 인근 산림 숲은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만주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일제 강점기 동안, 백두산과 인근지역은 중국 동북부로 침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최전방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또, 산림의 전략적 이용이 가능한 목재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Fedman, 2015: 181-182).

현대시기로 넘어오게 되면, 백두산과 북한의 김씨일가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 윈스탠리-체스터와 빅토리아 텐(Winstanley-Chesters and Ten, 2016)는 산 신앙과 산신전설으로서 한반도에 내려져 오던 백두산의 샤머니즘적 특징이 김일성의 일제 저항투쟁(예: 김일성과 김정숙이 백두산 주변에서 펼친 게릴라적 저항전술)<sup>5</sup> 및 북한의 통치전략과 연결되었다고 주장했다.<sup>6</sup> 구체적으로 1939년 5월 김일성과 그의 게릴라 부대가 백두산 근처 지역을 임시 야영지로 사용했는데, 당시 김종석은 나무에 다음과 같은 혁명구호를 새겼다: “별의 장군이 백두산에 솟아올랐다. 백두산의 장군이 3천리에 빛나고 있다. ... 전 세계의 억압받는 대중이며, 일어나 단결하라.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자”(Chizhova, 2022: 288). 나아가 북한정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백두산을 북한의 민족 정체성으로 형상화시켜 갔다고 덧붙였다. 윈스탠리-체스터(Winstanley-Chesters, 2016a)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김씨 일가의 통치정당성을 위해 백두산이 가진 상징을 이용했다고 언급했다. 윈스탠리-체스터(Winstanley-Chesters, 2020)의 최근 연구에서는 상징적 메타포로서의 백두산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백두산 장군이라고 일

<sup>5</sup> 실제 김일성의 독립운동 본거지로서 백두산에 주목한 학자도 있었다(Gittings, 2008).

<sup>6</sup> 비슷한 맥락에서 김정은 또한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다고 맥이천(Patrick McEachern)은 주장했다(McEachern, 2019: 45).

권는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과 카리스마를 보여 주기 위해 백두산이 가진 상징성을 활용했는데, 여기서 김일성은 게릴라 투사, 조국의 아버지, 김씨 왕조의 시조 등으로 표현된다. 나아가 백두산이 가지는 상징적 메타포와 결합해 김일성은 신화 속 인물이 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1960년대 북한은 백두산의 정일봉 지역을 혁명사적지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큼이나 —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 백두혈통을 강조하려는 북한 김씨일가의 정치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그는 평가했다(Chizhova, 2022: 288).<sup>7</sup>

그렇다면, 왜 북한의 김씨 정권은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 백두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카리스마적 지배 정당성을 혈통적 자질로 이어 가려는 후대 지도자인 김정일과 김정은의 의도된 노력 때문일 것이다. 베버(Weber, 1997: 449)가 지적했듯, 카리스마적 지배는 그 형식에 있어 특수한 성격을 띤다. 개인적 자질의 뛰어남에서 비롯되는 카리스마적 지배는 다른 누군가가 얻을 수 없는 역량이나 (신이 보냈다고 여겨지는) 어떤 타고난 자질로 인해 만들어지는데, 이런 관점에서 김일성은 그가 보여 준 항일무장투쟁과 같은 업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카리스마적 지배역량을 보유한 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 문제는 김일성 사후인 김정일과 김정은이다. 일반적으로 카리스마적 지배자가 죽거나 홀연히 사라지게 되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던 지배체제 또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후계자를 선정해 기존의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데, 김정일과 김정은이 세운 전략은 다름 아니라 카리스마를 가진 이의 혈통적 자질이였다. 세습된 카리스마를 주장하는 이들은(여기서는 김정일과 김정은) 카리스마를 처음 만든 이(여기서는 김일성이 해당)를 기념하는 한편, 자신들의 카리스마 또한 카리스마적 지배를 처음 만든 김일성과 다르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소위 씨족 중심의 세습적 카리스마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베버, 1997: 459). 이런 관점에서 암스트롱(Armstrong, 1995), 바이만과 린드(Byman and Lind, 2010: 53)는 북한당국이 김씨 일가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끊임없이 백두

<sup>7</sup> 관련해 브노와 벨테리에(Benoit Berthelie)은 백두산 장군의 탄생이 어떤 상징적 메타포 및 전설들과 연결되었는지를 잘 설명했다(Berthelie, 2013).

산과 연결시키는 이데올로기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북한 김씨일가의 세습적 카리스마를 정당화시키고, 또 자신들의 지배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두산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기에, 북한주민들에게 백두산은 성지이자, 가장 가 보고 싶은 여행지가 되기도 했다(Pai, 2000: 58-59).

## 2. 국경지역으로서의 백두산 지역과 이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지리적으로 북한의 함경남도과 함경북도에 위치한 백두산과 인근지역은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중국국경인 길림성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1962년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저우언라이는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체결하여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확정하고, 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한 영토권이 중국에 있음을 확인했다. 비밀협약의 형식을 띤 조중변계조약이었기에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에 중국어본이 우연한 기회에 한국측에 소개되어 한국인들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했다(노영돈, 2018). 1904년 한국의 외교권을 강취한 일본은 간도협약(1909)을 청국과 체결하고, 이후 간도를 청국에 할양했다.<sup>8</sup> 이후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일반명령 1호(General Order No. 1)'에 의해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1949년 중국과 북한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정하고 있다가 (Roehrig, 2010: 11) 1962년 성사된 북한과 중국의 변계조약을 통해 국경선이 명문화되었다. 변계조약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일부는 물론이고 간도도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현행 국제법의 '국경 안정성 근본적 원칙'에 따라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많은 한국인들에게 아쉬움과 분노로 남아 있다고 이근관(2010)은 주장했다.<sup>9</sup> 그러나 청-조선 국경논의에서부터 시작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중국

<sup>8</sup> 간도협약 당시 중국은 청나라의 기원이 백두산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전설을 근거로 삼아, 백두산이 중국 영역임을 주장하기도 했다(McCune, 1946).

<sup>9</sup> 실제 일부 한국의 연구자들은 조중변계조약이 북한의 나약함 때문에 만들어진 굴욕적인 국경협약이라 지적하고,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Harold, 2012: 292).

의 조중변계조약은 오히려 한국의 통일 이후 백두산 및 천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약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에, 이근관의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국경지역을 둘러싼 상이한 해석과 함께, 백두산 및 인근 국경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요인을 언급한 해외 연구들이 있다. 청즈 인(Chengzhi Yin, 2022)은 1960년대 초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조약이 확정되었음에도, 여러 분쟁들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1967년 이후 북한과 중국은 국경지역 근처에서 서로의 어선과 수송선을 가로채고 어부들을 억류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김일성은 당시 국경지역에서 벌어진 중국과의 분쟁을 두고 소련대사에게 북중관계가 긴장상태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Yin, 2022: 502).

스테일리(Straily, 2018)와 고마(Gomà, 2006: 871-873)는 통일 이후 남북 민족주의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건국신화가 만들어진 백두산을 두고 중국과 대외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Ahn Yonson(2007)은 2000년대 이후 중국당국의 적극적인 장백산 지역 개발사업을 지적하며 이것이 추후 한국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국은 건설이 완료된 장백산 공항 및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을 마무리했고, 장백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려고도 했다. 2017년 중국은 장백산 식생수직경관 및 화산 지모 경관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신청했고, 이어 2020년에는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신청했다.<sup>10</sup> 뿐만 아니라 2007년 장춘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부터 중국당국은 백두산의 중국이름인 장백산으로 홍보하고자 이와 관련된 책자와 포스터를 뿌리기도 했다.<sup>11</sup> 로에리그(Roehrig, 2010)는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중국의 움직임과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호명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움직임 때문에 한

<sup>10</sup> 여기에 더해 중국은 2010년부터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을 주장하면서, 이 지역이 만주족의 성산(聖山)인 동시에, 장백산 풍경구를 거점으로 “너인고성, 만주족문화박물관, 바오마서 유적지, 류딩산 문화명승지” 등을 포괄한 장백한 관광문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장백산과 연결된 발해사 유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문상명, 2022a).

<sup>11</sup> 이에 대한 반발로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3,000 계주에서 한국 대표팀은 은메달을 딴 이후 시상대에서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펼침에 따라 스포츠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Lu, 2017: 384).

국이 불안과 불만족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12</sup>

### 3. 근대 이전 백두산 지역을 둘러싼 국경지역 연구

국제정치학, 국제법, 지정학분야 등에서 다루어지는 북·중 국경지역(백두산 포함)연구들은 주로 1945년 이후에 일어난 현대 국경분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sup>13</sup> 이와 대조적으로 역사학계에서 다루어지는 백두산과 북·중 국경지역연구는 전 근대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에 주목했다.

특히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일어난 국경지역 회담 및 국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벨로(Bello, 2015)는 청나라 강희제는 1677년에 탐험대를 꾸려 백두산을 보냈는데, 당시 탐험대의 목적은 장백산 둘레의 정확한 계산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슈미드(Schmid, 2007)의 경우, 18세기 초-중반부터 진행된 청과 조선의 국경지역회담이 어떤 완전한 결말을 거두지 못했고, 이것이 이후 약 15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바라봤다. 슈미드가 지적했듯이, 18세기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만들어진 국경지역 논의는 1712년 강희제의 지시를 받아 백두산 지역을 답사하고 여기에 정계비를 세운 목극등(穆克登)의 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 1년 전인 1711년, 강희제는 과거 청·조선 사이의 국경지역 및 백두산 인근지역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 임무를 목극등에게 맡겼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1712년에 다시금 목극등을 백두산 지역에 파견한 것이다. 1712년 목극등은 조선 측의 안내와 협력을 받아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과 조선 사이의 경계지역을 확정 짓는 정계비를 설치했다. 다만 국경지역을 둘러싼 논의는 19세기 후반 조선백성들의 대규모 청나라 국경으로의 월간으로 인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관련해 로스키(Rawski, 2015) 또한 청·조선 사이의 국경선을 둘러싼 양국의 회담이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는데, 보다 장기적이고 세밀한 관점

<sup>12</sup>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영어권 문헌으로는 Yoon(2004, 2005)를 참고.

<sup>13</sup> 1945년 이후 진행된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경관련 역사 연구로는 Cathcart(2010)와 Winstanley-Chesters(2016b)를 참고.

에서 청과 조선 사이의 국경논의를 연구한 이는 김선민(Kim, 2017)이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청제국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조의 발상지로 알려진 백두산을 성지화하려고 했는데,<sup>14</sup> 하필이면 이 지역은 조선과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였다. 이에 따라 청 조정은 백두산을 포함한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국경을 확정지으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과 마찰이 생겨났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 초기만 해도 백두산이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는 식으로 조선조정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1414년 조선 예조(禮曹)는 조선 영토 내 주요 산과 강을 정한 바 있는데, 여기서 백두산은 주요 산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단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산 정도로만 취급되었다. 1437년 예조는 심지어 백두산에 대한 제의를 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까지 그 이유를 명시했다는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백두산을 가리켜 함길도의 명산이라고 칭하지 않았다(Kim, 2017: 58-59).<sup>15</sup> 그러다가 18세기 이래 청 정부가 백두산을 포함한 국경지역에 관심을 가지자 조선 정부 역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중국과의 조공체제를 벗어날 만큼 청나라와 국경분쟁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김선민(Kim, 2017)은 덧붙였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일어난 영토분쟁에 대해 칼슨(Karlsson, 2014)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칼슨은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일어난 영토분쟁의 역사적 사실보다는, 조선 후기 한국 지식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체성 속에서 백두산을 포함한 요동지역이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를 연구했다.<sup>16</sup>

이와 달리 쑹넨셴(宋念申, Song, 2017a)은 18세기부터 조선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근대적 공간지리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런 관심의 근원이 민족주

<sup>14</sup> 大清太祖高皇帝實錄 1:1b-3b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조상들은 장백산에서부터 나왔다.”

<sup>15</sup>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말 — ‘(한반도)의 모든 산들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어 남쪽의 철령에 이른다’ — 을 남기기도 했다.

<sup>16</sup> 예컨대 과거와 달리 조선 후기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은 발해를 한국의 역사에 편입시키기 시작했다.

의적 정서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경지역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관심은 중국과의 지정학적 부딪침과 갈등 때문에 만들어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청나라로부터 들어온 서구 지도제작기술은 한국의 지리적 공간을 시각화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쑹넨센은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 쑹넨센(2017b)은 20세기 초 두만강 국경지역을 둘러싼 한-중-일 간의 영토분쟁을 연구했다. 당시 국경지역 힘의 공백기와 관련해 일본 식민지 관료이자 국제법 전문가였던 시노다 지사쿠(Shinoda Jisacu)의 말을 빌려 ‘무인의 땅’이라 정의내리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쑹넨센은 지난 3세기 동안 한·중 국경지역을 둘러싼 분쟁이 어떻게 민족주의 및 제국주의(식민주의) 전략에 의해 변용되었는지를 추적했다.

쑹넨센(Song, 2020)은 최근 연구에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국경선 그리기 작업이 17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7~19세기 청과 조선 사이에 오간 국경선 논의가 집중된 이유에 대해 2가지를 짚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부적으로 만주와 한국의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외부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반응으로 국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셴과 줄리아(Shen and Julia, 2015)는 20세기 초에 벌어진 한·중 간 국경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간도협약(1909) 당시 상황을 소개하면서, 당시 간도가 일본의 의도에 의해 청나라에게 할양되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1960년대 조·중 변계조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중국은 간도협약을 통해 형성된 협약조항에 기초해 내심 국경선을 주장하려고 했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겉으로 북한에게 이러한 의도를 내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가 꺾끄러워질 것을 우려해서였다. 1962년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한 중소 분쟁 및 중국-인도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중국과 비밀리에 국경회담을 진행하고자 요청해 왔다. 중국은 소련과의 분쟁에서 북한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국경회담에 마지못해 참석해야만 했다. 1962년 4월 양국 간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중국은 북한에 비해 국경회담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을 일종의 형제국가 혹은 동맹으로 간주하였기에(Shen and Xia, 2013: 15), 한·중 국경선 작업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 결과 그

해 10월 중국과 북한은 약 1,334km에 달하는 국경선을 합의하였는데, 여기에는 백두산,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1909년 일본과의 간도협약 때 뺀 국경지역을 포기하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영토권을 거의 수용하였다. 그 결과 백두산 일대의 일부가 북한에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지호의 일부도 북한 영토가 되었다. 또한 국경을 따라 흐르는 강도 양측이 공동 소유권을 가지며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강 안에 있는 451개의 섬과 모래톱 가운데 중국은 187개를 차지했고, 북한은 264개를 가지기로 결정했다(Shen and Julia, 2015: 104-105).

한편 청제국과 조선 사이의 국경선을 둘러싼 논의는 최근 미국 내에서 신청사학파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김선민(Kim Seonmin)과 이블린 S. 로스키가 이에 해당된다. 신청사학파는 기존의 명-청시기를 하나의 연속된 중국왕조로 보는 대신, 청제국의 시기를 따로 떼어 낸 다음, 청제국의 역사를 만주족 중심으로 그리고 보다 거시적인 유라시아 역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사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 청나라는 만주족들이 세웠다는 점에서, 그리고 청나라의 영토 팽창이 기존의 중국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제국의 역사를 새롭게 쓸 필요가 있다고 바라본다.

신청사연구의 선구자격인 이블린 로스키의 경우, 만주족들은 청나라를 건국한 이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주어를 활용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만주족이 결코 한족에 동화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했다는 것이다(Rawski, 1996). 여기에 더해 청제국 통치에는 한족 중심의 유교적 세계주의보다 파스 만주리카(Pax Manjurica)라고 하는 다민족정체성에 가까웠기 때문에(Elliott, 2001), 청나라 역사는 기존의 한족 역사에서 서술된 협소한 관점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17</sup>

결과적으로 신청사의 논의는 그동안 한족중심주의에 물들어 온 중국역사에 대해 경각을 일깨워 주는 한편 청나라의 역사를 한족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볼

<sup>17</sup> 청나라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한족중심주의적 역사를 표방한 미국의 대표적 중국사학자로서는 호핑티(Ho Ping-Ti), 존 킹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 필립 쿤(Philip Kuhn) 등이 있으며, 중국의 역사학자로는 “Xiao Yishan 蕭一山, Zhu Xizu 朱熹祖, Qian Mu 錢木” 등이 있다(클로슬리, 2010).

것이 아니라 만주족과 유라시아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새롭게 제기한 것이다. 이런 신청사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백두산에 대한 접근마저도 새롭게 분석되기를 요청하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백두산 연구 또한 기존의 위계적 질서 속에서 해석되는 일방적 관계나 중국 중심의 역사서술이 아닌, 다면적/다층적 역사서술인 동시에 상호관계에 기반을 둔 역사기술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조정은 청나라와의 국경논의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나아가 조·청 사이의 국경회담이 결과적으로 유라시아나 동북지역 전체에 어떤 지정학적 변화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 접근인 것이다.<sup>18</sup>

### III. 결론 및 제언: 동아시아 지역연구에서 백두산을 바라보기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영어권 학자들이 수행한 백두산 연구를 3가지 연구 주제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한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측 측면에서 한국이나 중국 측 사료에 비해 영어권에서 발행한 백두산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2022년 연구자는 미국의 주요 100개 대학 동아시아 프로그램 교수들의 관심분야를 전수조사한 바 있는데(2021년 기준), 동아시아 프로그램 내 교수들의 주된 관심은 중국이나 일본이었다.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미 대학 연구진들의 수는 전체 1,023명 가운데 148명으로 중국의 574명, 일본의 336명에 비해 열세였다(유성희, 2022: 151-152). 무엇보다 연구자들 가운데 북한을 관심분야로 가진 이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다수의 백두산 연구들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나온 사료나 연구들을 재해석하는 수준이기에, 획기적인 이론적·사상적 연구나 치밀한 일차사료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 분단 이후 북한의 김씨 일가의 통치술에 활용되는 ‘백두산’ 논의, 그리고 백두산을 둘러싼 한-중 갈등과 관련된 영어권에서의 해석이 대체로 가치중립적이라는 점이

<sup>18</sup> 이외에도 이중환(1690~1756)의 『택리지』에서 표현된 백두산 묘사를 소개한 나탈리아 체스노코바(Nataliya Chesnokova 2022)의 연구도 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백두산을 소개하면서, 백두산이 어떻게 중국의 신성한 산이라 일컬어지는 곤륜산과 상징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조선이 소중화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다. 영미권의 경우 한국과 중국처럼 백두산의 문화적·역사적·지정학적 문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영어권 학자들이 백두산 연구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기여한 점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니라 백두산에 대한 영어권 청중들의 관심확대다. 그동안 백두산은 주로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영어권 학계에 알려졌다.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장백산(changbai mountain)으로 검색된 동료검토 논문은 6,894건에 달했고,<sup>19</sup>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엔젤레스 캠퍼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같은 단어로 동료심사를 받은 연구논문 수는 6,785건으로 확인되었다.<sup>20</sup> 이처럼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할 때,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연구 수는 백두산(paek mountain)이라고 지칭되는 그것들에 비해 수십 배에 넘는 실정이다(물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연과학적 연구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나브로 백두산에 대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고, 또 백두산에 대한 연구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영미권 학자들의 백두산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국내 백두산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결과가 기대된다.

둘째는, 백두산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다. 앞선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영미권에서 진행 중인 백두산 연구는 다양한 관심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백두산에 대한 다양한 관심분야가 백두산 연구에 대한 질적 성장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백두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우리에게 몇 가지 긍정적 신호를 던져주는데, 첫째, 백두산 연구주제가 하나의 방향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백두산에 대한 내러티브나 분석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향후 국내 백두산 연구자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up>19</sup> [https://hollis.harvard.edu/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changbai%20mountain&tab=everything&search\\_scope=everything&vid=HVD2&lang=en\\_US&offset=0](https://hollis.harvard.edu/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changbai%20mountain&tab=everything&search_scope=everything&vid=HVD2&lang=en_US&offset=0)(검색일: 2023. 5. 6.).

<sup>20</sup> [https://search.library.ucla.edu/discovery/search?query=any,contains,changbai%20mountain&tab=Articles\\_books\\_more\\_slot&search\\_scope=ArticlesBooksMore&vid=01UCS\\_LAL:UCLA&lang=en&offset=0](https://search.library.ucla.edu/discovery/search?query=any,contains,changbai%20mountain&tab=Articles_books_more_slot&search_scope=ArticlesBooksMore&vid=01UCS_LAL:UCLA&lang=en&offset=0)(검색일: 2023. 5. 6.).

마지막으로 영미권 학자들의 백두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또 영미권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백두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앞선 연구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과 북한당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는 백두산의 정치적-문화적 상징성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이렇듯 자국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이자 상징체로서 활용되는 백두산이기에,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도 객관적인 사회문화적 담론을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의 밑바탕에는 민족주의 담론에 갇힌 방법론적 국가주의 및 영토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이 아닌 다른 분석단위가 필요할 것인데, 그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region)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지역’이라는 측면에서의 백두산 연구는 이미 ‘변경(frontier/borderland)’의 관점이나 ‘글로벌/로컬(global/local)’의 관점에서 제기되었으며, 연구 성과도 산출되고 있다. 김선민과 송넨선(宋念申, Nianshen Song)의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제출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홍용호(2009) 또한 19세기 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맥락 속에서 러시아인들의 백두산 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핀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전근대 시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21</sup>

실제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할 경우, 의미 있는 연구들이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이효형(2020)은 발해 유민사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적 맥락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한·중 간 역사문제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적 평

<sup>21</sup> 동아시아 지역연구에서 백두산은 여전히 연구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주제는 철학, 문학, 역사학, 국제관계, 법학, 경제사, (역사)사회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동아시아 담론들’을 만들어 냈다(박승우, 2011). 이를 간략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와 관련된 논의로서는 김세원(2003), 박제훈(2004), 안충영·이창재(2003), 이창재 외(2005), 정인교 외(2009), Cheong(1999), 2) 지역안보적 담론과 관련해서는 김유은(2004), 김재한(2005), 김성철(2006), 이신화(2006), 조명현(1994), 3) 동아시아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강정인(2002), 고병익(1996), 국민호(1997), 손병해(2007), 유석춘(1997), 함재봉(1997), 그리고 4) 대안체제 담론과 관련해서는 백낙청(1995), 백영서(2000), 최원식(1993)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연구에서 ‘백두산’은 여전히 빠져 있는 고리다.

화와 번영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다. 정근식·선즈화(2017)는 한국전쟁 이후 동북지역의 위상변화를 소개하면서 백두산을 둘러싼 북·중관계를 다루었다. 이명중(2013)과 박선령(2004)은 백두산과 간도영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 관계를 각각 대한제국기와 장기간(‘과거-현재-미래’)의 시간 틀 속에서 재해석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보다 공식적인 접근을 시도한 김원수(2018)의 연구도 있다. 김원수는 간도문제를 그레이트 게임의 전개과정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시기 어린이 및 청소년 역사책 속에 들어 있는 동아시아 지도를 분석하면서 백두산을 언급한 정면(2013) 연구도 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지적한 산신신앙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신신앙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에,<sup>22</sup> 이를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백두산의 산신신앙이 어떤 측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중국경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역사적 갈등을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아시아 다른 국가들(인도와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히말라야 국경분쟁)과 비교해 봄으로써 독특한 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징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백두산 연구에서 활용되는 분석단위로서의 지역은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만의 집단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석단위로서의 국가를 중심에 놓는 백두산 연구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차크라바르티(Chakrabarty, 2018)가 제시한 전략을 활용해 국가라는 분석단위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두산 연구에 배태된 국가주의적 정치색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그리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을 조금 밀어내고 빈 공간에 지역색을 넣는다면 그동안 고려되지 않은 지역색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시도는 시·공간적 역사적 세계들을 하나의 국가주의적 틀이라는 보편성과 통일성으로 묶기보다, 모자이크처럼 서로 다른 질감을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새로운 담론 공간으로서의 백두산 지역연구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들

<sup>22</sup> 일본의 산악신앙에 대해서는 김후련(2004), 박규태(2007), 박승길(2002), 한국의 산악신앙에 대해서는 Mason(2012), 한·중·일의 산악신앙에 대해서는 박정원(2018, 2021)을 참고.

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투고일: 2023년 5월 25일 | 심사일: 2023년 7월 6일 |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31일

## 참고문헌

- 강석화. 2005.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문제.” 『기전문화연구』 32집, 181-203.
- \_\_\_\_\_. 2011.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6집, 195-224.
- 강정인. 2002. “세계화·정보화와 동아문명의 문화정체성: 서구중심주의와 아시아적 가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집 2호, 211-238.
- 고병익. 2006. 『동아시아사의 전통과 변용』. 문학과지성사.
- 고현철. 2005. “북한 정치사와의 상관성으로 살펴본 초기천의 1995년판 백두산.” 『국제어문』 35집, 231-269.
- 국민호. 1997.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유교.” 『한국사회학』 31집 봄호, 29-53.
- 김기영. 2020. “백두산의 시가문학적 형상화” 『어문연구』 106권, 99-122.
- 김동준. 2014. “18세기 북방여행의 배경과 신광하의 백두산 기행.” 『이화어문논집』 32집, 35-68.
- 김성철. 2006.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김영작·김기석 편. 『21세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60-62. 파주: 한울.
- 김세원. 2003. “동북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과제.”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호, 5-32.
- 김유은. 2004.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집 4호, 69-91.
- 김원수. 2018. “그레이트 게임과 간도협약의 글로벌히스토리 구상: 시론적 접근.” 『세계역사와 문화 연구』 49호, 29-59.
- 김재영. 2017. “19세기 말 20세기 초 백두산에 대한 인식변화.” 『역사민속학』 53호, 307-339.
- 김재한. 2005. 『동북아공동체』. 집문당.
- 김후련. 2004. “일본의 여신신화와 여음승배.” 『종교와 문화』 10권, 91-125.
- 노영돈. 2018.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 쟁점

- 의 변화를 중심으로.” 『군사』 108호, 235-270.
- 문상명. 2021. “조선 후기 ‘천하도’에 담긴 백두산 인식.” 『만주연구』 32, 37-67.
- \_\_\_\_\_. 2022a.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76호, 331-369.
- \_\_\_\_\_. 2022b.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 『동북아역사논총』 78호, 149-209.
- 박규태. 2007. “후지신앙과 여신: 고노하나노사쿠야히메·센겐신사·후지강.” 『일본사상』 12, 27-54.
- 박승길. 2002. “일본의 산악신앙과 슈겐도(수험도)의 세계관.” 『일본사상』 4, 235-268.
- 박승우. 2011.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1권 1호, 61-110.
- 박선령. 2004. “통치와 통제의 상호 이해를 통해 본 간도 문제: 동아시아의 간도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155-186.
- 박선영. 2007. “백두산정계비와 화이질서.” 『중국학보』 56집, 369-393.
- \_\_\_\_\_. 2020. “‘불편한 진실’: 한국학계의 백두산·간도지에 대한 성찰.” 『중국사연구』 127호, 207-245.
- 박정원. 2018. 『신이 된 인간들: 한국의 산신이야기』. 민속원.
- \_\_\_\_\_. 2021. 『중국오악기행』. 민속원.
- 박제훈. 2004. “동북아경제공동체, 쟁점과 제안.”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81-119. 동아일보사.
- 박찬승. 2013. “백두산의 ‘민족 영산’으로의 표상화.” 『동아시아문화연구』 55호, 9-36.
- 배성준. 2017. “19세기 후반 영국 왕립지리학회의 만주와 백두산 탐사.” 『인문논총』 74권 3호, 159-194.
- \_\_\_\_\_. 2018. “백두산 연구의 기회와 위기: 1990년대 이래 백두산 연구의 흐름과 과제.” 『한국문화』 84, 289-319.
- 배우성. 2007. “18세기 청의 지리지? 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역사와 경계』 65호, 27-62.
- 백낙청. 1995. “민족문화론, 분단체제론, 근대극복론.” 『창작과비평』 89호, 8-26.
-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 베버, 막스(Weber, Max) 저. 박성환 역. 1997. 『경제와 사회』. 문학과지성사.
- 서길수. 2009. “간도협약 직전 청국의 백두산 국경 날조사건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83호, 549-600.
- 손병해. 2007. “유교적 가치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국제경제연구』 13(1), 1-24.
- 송용덕. 2007. “고려-조선전기의 백두산 인식.” 『역사와 현실』 64, 127-159.
- 안상훈. 2015. “백두산 설화의 전승과 연행양상: 가린-미하일로프스키의 조선 기행문을

- 중심으로.” 『어문논집』 61, 251-284.
- 안충영·이창재 편. 2003.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 우명길. 2023. “19세기 국제질서와 영국인의 백두산 등반: 영국인의 백두산 여행기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60, 505-541.
- 유석춘. 1997.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재해석: 제도주의적 시각.” 『전통과 현대』 3호, 124-145.
- 유성희. 2022. “미국의 지역연구(1960-2020)에 나타난 아시아.” 『메가아시아 연구입문: 역사, 시각, 방법』, 129-162. 진인진.
- 윤휘탁.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197-254.
- \_\_\_\_\_. 2018a. “만주주인론: 만주 및 백두산의 역사적 주체에 대한 중국의 인식론.” 『승실사학』 41, 239-261.
- \_\_\_\_\_. 2018b. “중국의 ‘백두산공정’.” 『중국근현대사연구』 78집, 85-120.
- \_\_\_\_\_. 2013. “중국, 남북한의 백두산 연구와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51호, 107-142.
- 이근관. 2010. “통일 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5권 4호, 117-144.
- 이명중. 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 문화연구』 54집, 311-344.
- 이상태. 2007.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 『역사와 실학』 33집, 75-119.
- 이신화. 2006.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전략연구』 36호, 7-40.
- 이창재·강승필·김동주·김시곤·김익수·백권호·이수성·한백환. 1994. 『21세기 동북아경제협력을 위한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화자. 2008. “명청시기 중한 지리지에 기술된 백두산과 수계.” 『문화역사지리』 20권 3호, 31-50.
- 이효형. 2020. “발해 유민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역사와 세계』 57호, 29-66.
- 임수진. 2019. “‘백두’구조를 통한 김정은 정권의 정치사회화 전략분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백두산 영웅청년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77, 197-232.
- 정근식·선즈화. 2017.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역사비평사』 121호, 154-185.
- 정기은. 2008. “중국의 대국화와 백두산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의도.” 『백산학보』 79, 281-302.
- 정경희. 2018. “중국 ‘요하문명론’의 ‘장백산문화론’으로의 확대와 백두산의 ‘선도계천’ 전통.” 『선도문화』 24, 71-133.

- 정면. 2013. “그려지는 것들과 그리지 않는 것들: 어린이·청소년 역사책 속 동아시아 지도 분석.” 『역사학보』 218집, 35-72.
- 정인교 외. 2009.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서울경제경영출판사.
- 정우봉. 2018. “18세기 홍중일의 백두산 기행문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104집, 255-294.
- 정치영. 2011.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백두산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3권 2호, 140-157.
- 조대희·이승하. 2016. “연변 조선족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백두산’의 의미: 전후 냉전 시기(1953~1990)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61, 169-202.
- 조명현. 1994.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예상모형과 대응.” 『전략논총』 3집, 7-80.
- 차크라바르티, 디페시(Chakrabarty, Dipesh) 저. 김택현 역. 2018. 『유럽을 지방화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원식. 1993. “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창작과비평』 21권 1호, 204-225.
- 클로슬리, 파멜라(Crossley, Pamela Kyle). 2010. “신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시각과 최근 동향』, 183-197. 동북아역사재단.
- 함재봉. 1997. “유교와 세계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전통과 현대』 1(창간호), 26-49.
- 홍우호. 2009. “19세기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백두산 탐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3), 441-468.
- 『大清太祖高皇帝實錄』 卷 1. 1969. 華文書局.
- Armstrong, Charles A. 1995. “Centering the Periphery: Manchurian Exile(s) and the North Korean State.” *Korean Studies* 19, 1-16.
- Bello, David A. 2015. *Across Forest, Steppe, and Mountain: Environment, Identity, and Empire in Qing China's Borderlan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thelier, B. 2013. “Symbolic Truth: Epic, Legends and the Making of the Baekdusan Generals.” Available at: <http://sinonk.com/2013/05/17/symbolic-truth-epic-legends-and-the-making-of-the-baektusan-generals/>(검색일: 2023. 1. 27.).
- Byman, Daniel and Jennifer Lind. 2010. “Pye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35(1), 44-74.

- Campbell, Charles. 1892. "A Journey through North Korea to the Chang-pai Shan." *Proceeding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and the Monthly Record of Geography* 14(3), 141-161.
- Cathcart, Adam. 2010. "Nationalism and Ethnic Identity in the Sino-Korean Border Region of Yanbian, 1945-1950." *Korean Studies* 34, 25-53.
- Cavendish, Alfred Edward John and Goold-Adams, Henry Edward Fane. 1894.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Being a Brief Account of a Journey in Korea in 1891*, Together with an Account of an Ascent of the White Mountain. London: George Philip and Son.
- Cheong Inkyo. 1999.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Chizhova, Ksenia. 2022. "North Korean Calligraphy: Gender, Intimacy, and Political Incorporation, 1980-2010s." *Journal of Korean Studies* 27, 275-304.
- Fedman, David Abraham. 2015. *The Saw and The Seed: Japanese Forestry in Colonial Korea, 1895-1945*.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Freeman, Carla P. 2010. "Neighborly Relations: the Tumen Development Projects and China's Security Strateg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63), 137-157.
- Gittings, John. 2008. "The Juche Doctrine and Kim Il Sung's success," pp. 232-247. edited by Susan Pares and Jim Hoare. *Korea: The Past and the Present. Volume 2*. Leiden and Boston: Global Oriental.
- Gomà, Daniel. 2006. "The Chinese-Korean Border Issue: An Analysis of a Contested Frontier." *Asian Survey* 46(6), 867-880.
- Grayson, James Huntley. 1996. "Female Mountains Spirits in Korea: A Neglected Tradition." *Asian Folklore Studies* 55(1), 119-134.
- Grayson, James Huntley. 2002. "Three Structural Patterns of Korean Foundation Myths." *Acta Koreana* 5(2), 1-25.
- Haeussler, Sonja. 2010. "Descriptions of Baekdusan and the Surrounding Area in Russian and German Travel Account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4), 151-186.
- Harold, Scott W. 2012. "Jeodo as Metaphor? The Growing Importance of Sovereignty Disputes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 Asian Perspective* 36(2), 287-307.
- James, H. E. M. 1888. *Long White Mountain or A Journey in Manchuria*.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 Karlsson, Anders. 2014. "Northern Territories and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erritory in late Chosun," pp. 61-77. edited by Andrew David Jackson. *Key Papers on Korea: Essays Celebrating 25 Years of the Centre of Kore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Leiden and Boston: Global Oriental.
- Kendall, Laurel. 2011. "The Contraction and Expansion of Shamanic Landscape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CrossCurrents* 61(3), 328-344
- Kim Seonmin. 2017. *Ginseng and Borderland: Territorial Boundaries an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Qing China and Choson Korea, 1636-1912*. Oakland,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u, Chen. 2017. "The emergence of the Anti-Hallyu Movement in China." *Media, Culture & Society* 39(3), 374-390.
- Mason, David A. 2012. "The 21st-Century Role of Korea's Sanshin Mountain-Spirits." 『선도문화』 13, 597-614.
- McCune, Shannon. 1946. "Physical Basis for Korean Boundaries." *Far Eastern Quarterly* 5(3), 272-288.
- McEachern, Patrick. 2019. "Centralizing North Korean Policymaking under Kim Jong Un." *Asian Perspective* 43(1), 35-67.
- McKay, Alex. 2015. *Kailas Histories: Renunciate Traditions and the Construction of Himalayan Sacred Geography*. Brill's Tibetan Studies Library vol 38. Leiden: Brill.
- Olsen, Edward A. 2008. "Korean Nationalism in a Divided Nation: Challenges to US Policy." *Pacific Focus* 23(1), 4-21.
- Pai Hyung Il. 2000. *Constructing 'Korean' Origins: A Critical Review of Archeology, Historiography, and Racial Myth in Korean State-Formation Theories*.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ski, Evelyn S. 2015. *Early Modern China and North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ehrig, Terence. 2010. "History as a Strategic Weapon: The Korean and Chinese Struggle over Koguryo."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45(1), 5-28.

- Rogaski, Ruth. 2018. "Knowing a Sentiment Mountain: Space, Science, and the Sacred in Ascents of Mount Paektu/Changbai." *Modern Asian Studies* 52(2), 716-752.
- Rogers, Michel C. 1982-3. "P'yönnön T'ongnok: The Foundation Legend of the Koryö State."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 3-72.
- Schmid, Andre. 2007. "Tributary Relations and the Qing-Chosun Frontier on Mount Paektu." Diana Lary, ed. *The Chinese State at the Borders*, 126-150. Vancouver and Toronto: UBC Press.
- Shen, Zhihua and Julia Lovell. 2015. "Undesired Outcomes: China's Approach to Border Disputes during the Early Cold War." *Cold War History* 15(1), 89-111.
- Shen, Zhihua and Yafeng Xia. 2013. "Contested Border: A Historical Investigation into the Sino-Korean Border Issue, 1950-1964." *Asian Perspective* 37(1), 1-30.
- Song, Nianshen. 2017a. "Imagined territory: Paektusan in late Chosön maps and writings."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37(2), 157-173.
- \_\_\_\_\_. 2017b. "The Journey towards 'No Man's Land': Interpreting the China-Korea Borderland within Imperial and Colonial Context."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6(4), 1035-1058.
- \_\_\_\_\_. 2020. "A Buffer against Whom? Rethinking the Qing-Chosön Border Region." *Geopolitics*, DOI: 10.1080/14650045.2020.1844670.
- Straily, Katy. 2018. *Simmering Strife: Mt. Paektu and Sino-Korean Relations*. M.A.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 Winstanley-Chesters, Robert. 2016a, "Charisma in a Watery Frame: North Korean Narrative Topographies and the Tumen River." *Asian Perspective* 40(3), 393-414.
- \_\_\_\_\_. 2016b, "Discovering Mineralogical Terrains and Landscapes of North Korean and Soviet Development, 1945-1950, in the Captured Documents Collection." *North Korean Review* 12(2), 9-25.
- \_\_\_\_\_. 2020. *New Goddess on Mount Paektu: Myth and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n Landscape*. Black Halo Productions.
- Winstanley-Chesters, Robert and Victoria Ten. 2016. "New Goddeness at Paektu Mountain: Two Contemporary Korean Myths." *S/N Korean Humanities* 2(1),

151-179.

Yin, Chengzhi. 2022. "Logic of Choice: China's Binding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1965-1970." *Security Studies* 31(3), 483-509.

Yoon, Hwytak. 2005.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Korean History." *Korea Journal* 45(1), 1-25.

\_\_\_\_\_. 2004. "China's Northeast Project: Defensive or Offensive Strategy?" *East Asian Review* 16(4), 99-121.

Yonson Ahn. 2007. "China and Two Koreas Clash Over Mount Pekdu/Changbai: Memory Wars Threaten Regional Accommodation." *Japan Focus* 5(7), 1-10.  
<https://apjif.org/-Yonson-Ahn/2483/article.pdf>(검색일: 2023. 6. 11.).

[https://hollis.harvard.edu/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Paektu&tab=everything&search\\_scope=everything&vid=HVD2&facet=searchcreationdate,include,2001%7C,%7C2023&facet=rtype,include,articles&facet=tlevel,include,peer\\_reviewed&lang=en\\_US&offset=210&came\\_from=pagination\\_21\\_22](https://hollis.harvard.edu/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Paektu&tab=everything&search_scope=everything&vid=HVD2&facet=searchcreationdate,include,2001%7C,%7C2023&facet=rtype,include,articles&facet=tlevel,include,peer_reviewed&lang=en_US&offset=210&came_from=pagination_21_22)(검색일: 2023. 7. 18.).

[https://hollis.harvard.edu/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changbai%20mountain&tab=everything&search\\_scope=everything&vid=HVD2&lang=en\\_US&offset=0](https://hollis.harvard.edu/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changbai%20mountain&tab=everything&search_scope=everything&vid=HVD2&lang=en_US&offset=0)

<https://search.library.ucla.edu/discovery/search?query=any,contains>(검색일: 2023. 5. 6.).

[changbai%20mountain&tab=Articles\\_books\\_more\\_slot&search\\_scope=ArticlesBooksMore&vid=01](https://search.library.ucla.edu/discovery/search?query=any,contains,changbai%20mountain&tab=Articles_books_more_slot&search_scope=ArticlesBooksMore&vid=01)

[UCS\\_LAL:UCLA&lang=en&offset=0](https://search.library.ucla.edu/discovery/search?query=any,contains,UCS_LAL:UCLA&lang=en&offset=0)(검색일: 2023. 5. 6.).

---

Abstract

## Mount Paektu: Anglo-American Scholars Since the Twenty-First Century

Sung Hee Ru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Since the 21st century, various topics have been combined with domestic research on Mount Paektu. In 2013, Mount Paektu recorded the highest number of studies in terms of quantity. Nevertheless, there has been a lack of synthesis of the views of Mount Paektu from the outside. To fill this missing link, this study synthesizes and discusses the research on Mount Paektu in the Anglosphere. First, the studies produced by the Anglosphere have linked Mount Paektu to its cultural identity including shamanism and the rulership of the Kim family in North Korea. Second, the studies have focused on how Mount Paektu, as a borderland, which has been a source of geopolitical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r North Korea and China. Third, several Anglo-American historiographies have focused on the pre-modern Korean and Qing dynasties' debates over Mount Paektu and the surrounding borderlands. Fourth, Anglosphere researchers are also interested in the variety of geographical and cultural information found in nineteenth-century foreign travel accounts of Mount Paektu. After categorizing Mount Paektu studies from the Anglo-American perspective into these four areas, the author proposes a unit of analysis, the East Asian region, to arrange new Mount Paektu studies.

**Keywords** | Mount Paektu, East Asia, Kim family, Shamanism, Border area